



## 水邊情談

내 고향 문경은 영강이 굽이쳐 흐르는 소백산 줄기에 자리잡고 있다.

풀잎마다 나무줄기 마다 녹아 내렸던 이슬이 한 두 방울씩 모이고 심산 깊숙히에 겨우내 쌓였던 백설이 훈훈한 인심을 받아 영강을, 낙동강을 이토록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영육의 세월이 난세에 영웅과 간신을 배출했지만, 유수의 세월이 물길을 내고 선인들을 불러모아 불멸의 영남유학사상을 잉태시키지 않았던가. 세월의 번잡을 피해서 내 어렸던 시절의 고향을

욕심많은 인간이 물만 갈지 못하여 재물을 모으고 영화를 누리기가 끝이 없는가 싶더니, 무소불능의 자리 뒤에 숨겨두었던 재물과 향락이 남가일몽이 아니던가. 높다높은 백화산 준령의 지위를 마다하고 아늑함이 가득한 용소(龍沼)를 마다하고 굽이 낮은 자리, 바다를 찾아 영강을 떠나 낙동강을 벗삼아 기어코 기나긴 여정을 나서려는가. 잡아도 잡올려 해도 잡히지 않는 너에게 여정 속의 아슬함, 가련함이, 두려움이 같이하지만, 기어코 먼 길을 떠나는 물음을 알 수 없구나.

생뿍취폐리가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갈증의 목을 적시는 한 모금의 그 물맛을 생각하며, 울었던 시 한 구절이 생각난다.

## 물의 교훈

찾아와 무심코 흐르는 영강을 바라보노라면 잠언(箴言)이라 할까 아니면 교훈(敎訓)이라 할까. 강줄기마다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슬기로움이 흐른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가장 강하고 견고한 곳을 찾아 나선다. 그러나 무엇을 만들기엔 가진 것이 없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일 듯 말듯한 것이 고고한 유수의 세월은 기어코 유려한 반석을 만들어 내고만다. 참을성이 있어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단단한 돌을 꿰뚫기도 하고 범람하는 홍수는 자신보다 더 넓은 것을 송두리채 삼켜버리기도 한다.

“물, 너는 맛도 없고 빛깔도, 향기도 없지 않는다.”

너는 알지 못하는 체 맛보는 물건이 아니던가. 너는 생명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너는 관능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쾌락을 인간의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한다. 너와 더불어 우리 안에는 우리가 단념하였던 모든 권리가 다시 들어온다. 네 은혜로 말라 붙었던 마음의 모든 샘들이 다시 솟아난다.”

지 흥 기  
(영남대 교수)

우리는 물은 너무 혼하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모르면서 지낸다. 사람은 걸쭉을 통해서 사물의 귀한 가치를 발견하게 마련이다.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의 은공을 모르며, 건강할 때는 몸의 고마움을 모른다. 물이 넘쳐 흐를 때에는 물의 맛과 그 빛깔이나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 우물이 마르고 사막 같은 건조한 들판에서 갈증을 느낄 때, 비로소 물은 생명 그 자체로서 인식된다.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와 씨름을 하다가 넘어졌을 때, 대왕은 통곡을 하고 울었다 한다. 지켜본 부하들은 대왕이 승부에 패한 것을 분하게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는 줄만 알았던 부하들, 대왕은 쓰러지는 순간에 죽음을 생각하며, 죽고난 후에 차자에게 필요한 땅은 지금 쓰러진 한평 남짓한 넓이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안 것이다. 그 넓은 세계를 정복한 대왕이라 해도, 그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땅은 관의 넓이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허무 때문에 그는 통곡한 것이다.

틀스토이는 그의 단편 속에서 “인간에겐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평생 넓은 영지를 소유하고 싶어하던 한 욕심장이가 어느날 뜻밖의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그는 큰 지주로부터 해가 떠서 질 때까지의 자기가 원하는 땅을 표시해 놓기만 하면 전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는 약속과 함께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약속을 받는다. 그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종일 견고 또 걸었다.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더 빨리 걸어야만 했다. 그러나 일몰 직전에 약속장소로 돌아온 그는 숨이 차서 피를 토하고 죽어 버린다. 너무 무리를 한 까닭이다. 결국 그가 필요로 한 땅은 사망 여섯자밖에 안되는 작은 묘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과연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자문해 볼 일이다. 토지를 사두면 누구나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세속적인 욕망도 결국에 묘터 이상의 땅을 허락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덴마크는 원래부터 농업국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덴마크는 무력에 의해서 북유럽을 지배해오다가 19세기 중엽에 프로시아의 오스트리아 군에게 패배를 당한다. 이 때부터 넓은 국토를 잃은 덴마크의 국민들은 희망도 동시에 상실하며 민족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 때 그룬드비히가 내세운 구호가 바로 “칼로 잃은 땅은 팽이로 일으키자”는 것이었다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옛날은 그러하지 않았지만 오늘의 우리 현실은 농경을 위한 땅이 아니고 부를 축적하는 땅으로 세태가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도 옛 조상들의 슬기를 음미해 보면서 밭을 가는 것(農耕)이 곧 마음을 가는 것(心耕)이었던

선조들의 삶을 어떻게 이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이다.

오늘도 낙동강 물길을 옆자리 하면서 살아가는 군생들이여! 명예와 권력과 재력을 함께 하고픈 사람이 있거던 장자(壯者)에게 물어 보라. “無己, 無功, 無名”을 가르쳐 성현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문득 주요한 선생이 지은 시 한 수 생각이 난다.

“샘물이 혼자서  
춤추며 간다.  
산골짜기 들 틈으로,

샘물이 혼자서  
웃으며 간다.  
험한 산길 꽃 사이로

하늘은 맑은데  
즐거운 그 소리  
산과 들에 울리운다.”

마치 높은 자리 마다하고 낮은 자리 찾아가는 물소리가 우리를 희롱이라도 하듯, 외로운 가운데서도 춤추며, 웃으며, 즐거운 노래를 산과-들은 울린다. 인간을 감동시킨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만물을 통하여 흐르게 하니 인(仁)이며, 맑음을 추구하고 탁함을 꺼려서 더러움을 쓸어버리니 의(義)이고, 부드러우나 법하기 어렵고 약하면서도 강함을 능히 이기니 용(勇)이며, 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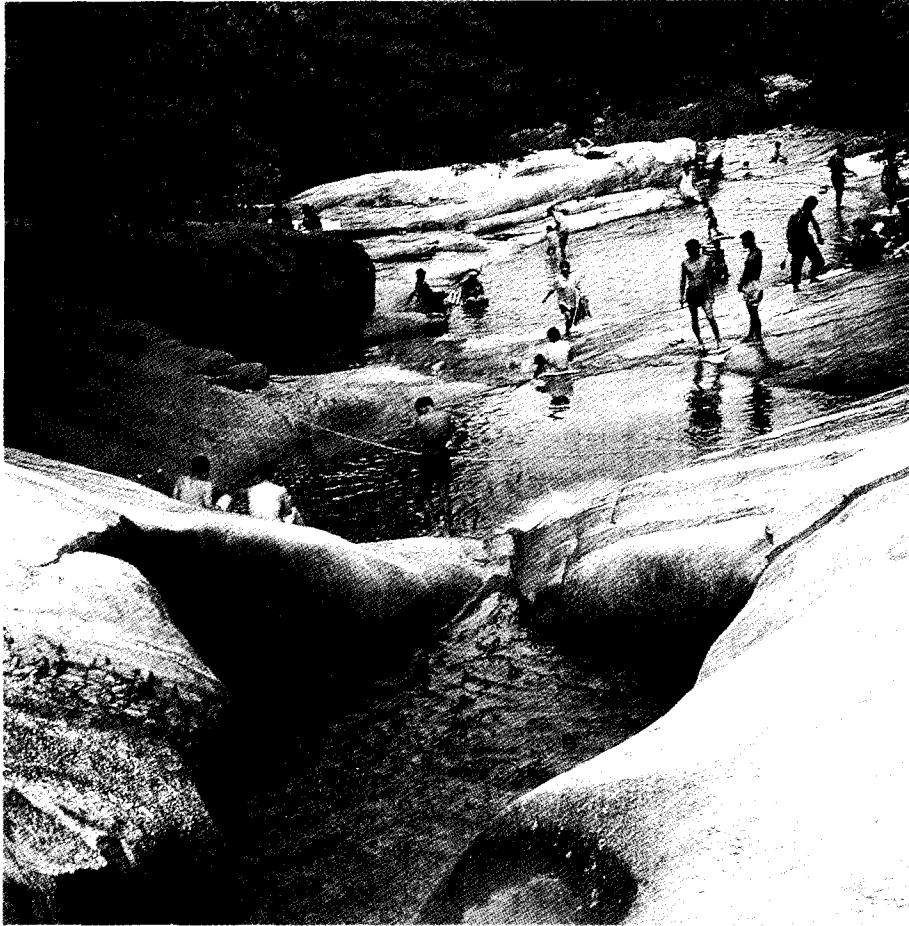
물이 강으로 바다로 나아감에 나  
뿔을 포용해도 흐름이 겸손하니  
지(智)를 겸하지 않았는가.

아! 오늘도 쉬지 않고 굽이쳐  
흐르는 영강이여. 흐름의 모습이

아직도 쉽이 없이 한결 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굽이굽이 왜  
곡되고 변질되어 지쳐 있구나.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비록 낮  
기는 해도 안정된 바다를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남겨두고서  
남해로, 태평양으로, 세계로 나  
아간다. ☞



◇ 필자가 자주 찾는 대야산 용추계곡

거대한 화강암반 한 가운데를 뚫고 용추(龍秋)가 있으며 용이 승천할 때  
남긴 용비늘 자국은 신비롭기만 하다.